

농촌진흥의 래일을 마중간다



농촌진흥의 휘황한 래일을 밝힌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각지 농업근로자들의 격동은 그 누구보다 남다르다.

《전원회의보고의 구절구절마다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가는 사회주의리상촌을 안겨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에 대한 내용을 깊은 감동속에 받

아안았습니다.》

이번에 공화국의 농업근로자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와 보내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또 농촌이 제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

장들의 경제적대배를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해달에 대한 특혜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지금 공화국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무조건 결사관철 해갈 의지를 안고 그 어느때보다 분발하여 떨쳐나섰다.

새해에 들어와 며칠동안에 전국적으

로 백수십만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냈으며 1천여정보의 농경지에 흙갈이를 진행하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과제들을 맡아 기여이 훌륭한 결실을 이룩할 열망안고 떠나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는 농업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흉경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안아올 열의에 불타있는 금성트랙트르공장의 근로자들, 기어이 다수확을 이룩하여 오늘의 농민영웅, 애국농민이 될 고결한 지향을 안고 사는 농업근로자들...

조선로동당이 밝힌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 있고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애국심이 있어 농촌진흥의 휘황한 래일은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독재문답

제카나타동로 최수만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무엇인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시대를 알리는데 위대한 투쟁강령

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라고 하시었다.

다시말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

운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농촌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전면적부흥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인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한민정음》과 《파리정음》의 차이점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뛰어넘어 난 슬기와 지혜로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문화적재부를 수없이 창조하였다.

그중에는 1444년 1월에 창제된 《한민정음》도 있다.

《한민정음》은 글자에서 가장 발전된 유형인 낱소리글자로서 우리 말의 풍부한 말소리들을 다 잘 나타낼수 있는것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말소리들도 거

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말소리들의 특성에 맞추어 획을 더하거나 두개 또는 세개 글자들을 합치는 등 체계성있게 만들어졌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다는것도 《한민정음》의 영점의 하나이다. 사람의 매 발음기관의 모양에 따라 글자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순환소리, 거센소리의 성질에 따라 글자획을 더해준것, 된소리를 같은 소리의 영점으로 보고 같은 자음을 반복하여 쓰도록 한것 등은 참으로 경탄할만한 발견이었다.

하기에 언어학에서 제노라고 자부하는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세계 모든 문자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그 1위가 바로 다름아닌 조선글자였다는 사실, 국제무대에서 진행된 《언어유희》

에서 조선어가 의외의태어가 가장 많은 언어로 매번을 쥐었다는 사실들은 실로 조선훈의 우수성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오랜 력사적기간 발전하여온 아름답고 세련된 조선어는 해방후 공화국에서 평양문화어로 발전하여왔다.

평양문화어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언어정책에 의하여 민족적특성이 높게 발달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표준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평양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어전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한자사용의 전면폐지와 언어정화, 어휘정리사업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는 평양문화어는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지난날 우리 말에 끼여들어왔던 까다롭고 불필요한 외래어적요소들이 가세되고 고유어에 기초한 하나의 단어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민족적특성을 가장 높은 단계에서 순결하게 고수해나가고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려명려관》, 《금산로독산물상점》 등과 같은 우리 말에는 그 얼마나 민족성이 차넘치는 것인가.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평양문화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리성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남조선농민들의 처지

에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에서 식량문제가 중요하기때문이라 해야 할것이다.

하나 남조선에서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천하지대단》으로 천시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있고 농민들이 계속 줄어들고있고 농민들이 계속 줄어들고있고 농민들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농사에 필요한 연료와 비료, 농약원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영농자재비가 오르면서 농민들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농민들의 총수입에서 영농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20년 67.5%로 증가하였으며 영농자재 구입가격이 농산물판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게다가 농민들의 평균나이는 59살로서 고령화되어있기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체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농민들의 년평균소득은 도

시근로자들의 60%밖에 되지 않으며 이로부터 농민들은 농사일로만 살수 없어 곁업을 하면서 막대한 처지에서 심용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남조선농민들은 농사에서 제해성기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있는데 2020년 연이어 들어닥친 장마와 태풍피해로 15만 7 000여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매 농가가 평균 3만 1 000US\$이상의 빚을 지고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남조선에서는 외국산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농민들의 생활기반이 큰 타격을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전체 알곡수요량중 약 80%를 외국산농산물로 충당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농민단체들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농민들의 명줄을 끊어놓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을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농민에게 복지, 농업은 산업화 필요”



가물에 애타는 농심, 도시는 알까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내가 알게 된 세쌍둥이 (2)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북소리엔 얼굴의 방송원은 쌍둥이들에게 물었다.

방송원: 《이렇게 우리의 무대로 세쌍둥이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요?》

세쌍둥이: 《우리들은 금성제1중학교 4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세쌍둥이들입니다.》

방송원: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견해하시겠나요.》

세쌍둥이3: 《아마 우리 어머니는 지금 또 우실겁니다.》

방송원: 《우신다구요?》

《?!》

나도 TV속의 방송원도 깜짝 놀랐다.

방송원의 놀라움이 리해된다는듯 얼굴이 발기우리하게 샅기런 처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군관의 안해입니다. 온 나라의 보살핌과 관심속에 우리 세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도 고마움 일인데 나라에서 우리 세쌍둥이들에게 보내준 사랑의 금반지까지 받아안고보니 너무나도 고마워 감격의 눈물들이

흘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육아원과 육아원에서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 세쌍둥이들에게 불려있을세라 이전보다 더 좋은 내칸자리 덩실한 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고마움에 목이 딱 메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양으로 공부하러 오던 날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고마운 당의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훌륭한 무대에서 노래부르는것을 보시면 어머니는 너무 고맙고 기뻐 또 우실겁니다.》

나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팔을 두고있지만 그제가 나서부터 다 자라도록 정말 많은 고생과 품을 들여왔다. 자식 하나 키우자 해도 그렇게 힘든데 한남한시에 세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육아는 곧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녀성의 경우에도 다태아를 큰 부담으로 여기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나는 조국에서 세쌍둥이들이 어떻게 태어나 자라고있는지 잘 알고있다.

내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삼태임신으로 의문시되는 녀성들은 해당 치료에방기관료의료인들과의 련계밑에 평양산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삼태임신으로 진단된 녀성들은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건강관리를 보장받는다.

세쌍둥이들은 육아원에서 담당사와 담당 간호원의 직접적인 보호속에 자라게 된다.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전문과 의사를 고정담당시키는 건강보호체제를 세워놓는다. 세쌍둥이들은 국가적인 부담으로 육아원에서 키워주며 소학교에 갈 때까지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것은 어머니라지만 그 어머니와 태어날 자식을 모두 안아 보살펴주는 국가의 해례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하는가고 묻는 교장의 말소리에 생각에서 깨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한 어머니들에 대하여 생각하던 참입니다.》

한여름의 바람결이 학교정문을 나서는 나의 귀머리머리를 훑아냈다.

무엇때문인가, 누구때문인가, 나는 어느 한 나라에서 10대의 소년들을 칼로 무참히 죽였다는 청년살인범에 대한 기사를 다시한번 상기했다.

청년이 그렇게 되돌아오는 법칙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한것은 과연 누구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절대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수는 없으며 오히려 세쌍둥이를 키우지 못하게 할수 있다.

온 나라 아이들을 모두 한 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피며 참되게 교육 교양하는 국가만이 그들의 미래를 꽃피울수도, 책임질수도 있는것이다.

나는 그 누군가의 말을 상기했다.

《진실한 사랑없는 교대판실은 무덤과 같다.》

재중동포 김영란

《외래어에 오염되어가는 우리 말》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은 남조선에서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이 파괴되고 거리간관, 건물이름, 방송 등 외래어가 밀려나고있고 언어의 넘과 정서가 파괴되고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요즘 우리 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너무나 걱정스럽다. 얼마전 길을 가다가 대역섯살 아이가 된가를 보고

《와우!》 하며 크게 놀라는 장면을 목격했다.

《와우》라던 영어감탄사일텐데 영어감탄사까지도 일상적인 우리 말로 둔갑해 대역섯살 아이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있는것이다.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TV프로제목으로 쓰이기 시작한 옛것과 같은데 어느새 자연스러운 우리 말의 일부인양 돼버렸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도심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유심히 한번 관찰해보라. 오래된 몇몇 건물은 한자어로 되어있긴 하지만 신식고층건물은 대부분 외래어로 되어있다.

어떤건 아예 외래어로 볼수 없는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우리 말의 소리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또는 《한글》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외래어, 외국어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도 있다.

아빠트림이나 일반가게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정감있는 순 우리 말로 된 이름을 찾아보는건 가물에 콩나듯 귀히 적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서양식건물을 가리키는 일반명사, 통상적인 건물들이

들도 모두 외래어로 되어있다. 《빌딩》, 《맨션》, 《펜션》, 《호텔》 등이 그런 예이다.

이카운테 《빌딩》은 본래 일대사무실을 가지고있는 서양식의 고층건물을 가리켰으나 이젠 그저 《고층건물》을 가리킨다.

《펜트하우스》는 아바트분양을 광고하는데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기계실로 리용되거나 물탱크가 있는 옥상창고로 뜻하는 영어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바트나호텔같은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매우 값비싼 주거공간을 뜻하는 말로 더 널리 쓰이고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는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손쉽게 적절한 우리 말로 바꾸어 쓸수 있는 외래어가 아닐까싶다.

현재 우리 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할진대 우리 말의 발전과 미래는 기약하기 힘들다.

본사기자

